



발행인 | 이용우 편집인 | 김영훈 박지훈 신혜란 발행처 | 대한지리학회  
Tel | 02-875-1463 Fax | 02-876-2853 e-mail | geography77@hanmail.net  
주소 | 우) 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한강현대하이텔 1413호

제 **143**호

2020년 9월 30일

## Contents

|               |    |
|---------------|----|
| 해외교수 칼럼       | 1  |
| 신임교수 칼럼       | 5  |
| 전문학회 회장 칼럼    | 6  |
| 지리학 연구기관을 찾아서 | 7  |
| 대한지리학회 소식     | 8  |
| 전문학회 소식       | 10 |
| 새로 나온 지리학책    | 10 |

### 해외교수 칼럼

## Covid-19 “전문가”가 되어 생각해본 지식대중화의 어려움<sup>1)</sup>

— 손정원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저는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지리학자라고 해도 되겠고, 정치지리학자라 해도 될 듯 싶습니다. 보건관련 연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Covid-19 “전문가 (sic)”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학술지에 초청논문도 쓰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써 봤습니다. Covid-19 보다는 언론, 글쓰기, 지식의 대중화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 자고 일어났더니 코비드19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주요 도시에서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있는 한국인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전부터 한국 언론 인터뷰 요청은 많았다. 하지만 자주 응하지는 않았다. 내 말이 엉뚱한 맥락에서, 심지어는 거의 반대의 의미로 나가는 것은 좀 많이 기분 나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에 나가는 것은 내 성격과 잘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대중적인 언어에 능하지 못하고, 소통에 노력할 성의도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다. 그래서 내 연구 분야와 딱 맞는 주제가 아니면 언론에 내 이름을 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난 몇 년간 잘 지켜왔다.

그랬던 내가 지난 2월말에 내 원칙을 스스로 깨고 언론에 직접 글을 쓴 것이다. 학교 언론 담당자가, 자기가 Guardian이나 Time의 지면을 섭외할 테니 코로나 사태에 관해 글을 써보면 어떻겠냐

1) 본 글은 한미 지리정보 및 환경과학 협회 소식지(KAGES NEWSLETTER) 2020년 9월호 Vol. 17, No.3에 실린 글이다. [http://www.kages.org/season2/wp-content/uploads/2020/09/KAGES\\_Newsletter-2020-%EA%B0%80%EC%9D%84%ED%98%B8.pdf](http://www.kages.org/season2/wp-content/uploads/2020/09/KAGES_Newsletter-2020-%EA%B0%80%EC%9D%84%ED%98%B8.pdf)

고 해서, 그러자고 한 것이다. 영국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영국에서 community service 활동을 한 바 전혀 없고, 심지어 학계활동도 영국보다는 미국, 중국, 한국에서 주로 하다 보니, 항상 나는 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덜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지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엔 그 자각지심 좀 떨어보자 싶어서 대중적인 글을 써 보기로 했던 것이다. 한국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내가 아는 것들을 엮어, 영국사람들이 읽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을 수준에서 한국의 방역에서 IT기술 활용에 대해 기사를 썼다.

그게 영국사람들이 평소에 별 관심이 없는 한국이야기라서 그랬는지, 그 때만 해도 영국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 글이 시원찮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요 미디어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Conversation.com이라는 온라인 매체에 실리게 되었다. 작은 매체에 게재되었으니 별로 반응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3월 말이 되면서 의외로 엄청난 반응이 왔다. Facebook과 Twitter로 수백회 share, retweet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도 내 글을 접한 것인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 중에는 알자지라 (Al Jazeera), 독일의 도이체벨레 (Deutsche Welle), 싱가포르의 Channel News 등 TV방송도 있었고, 미국 Christian Science Monitor, 브라질 Exame, 덴마크 Weekendavisen 등의 활자매체도 있었다. 나중에는 감당이 되지 않아 군소매체에서 들어오는 인터뷰는 거절해야 할 정도까지 되었다.

## 네러티브가 증거보다 힘이 세다

그 과정에서 내게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언론인들이 보여준 자기 네러티브에 대한 완강한 고집이었다. 아시아인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개인이 집단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고 전제해 놓고, 그것이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동선추적과 같은 기법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네러티브를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인터뷰가 조각조각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나는 동선추적이 사생활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선추적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크게 침해하는 lockdown을 방지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 그렇게 쉽게 기각해버릴 대안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항상 말했지만 내 주장을 보도해 준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네러티브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네러티브의 기저에는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가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적 가치는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관유가 주창한 것으로, 학술적인 논쟁을 다 사상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자면 박정희의 민족민주주의론과도 비슷하다. 서구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있는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주의적, 위계주의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구적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사회와 잘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집단주의적, 위계주의적 특성을 잘 활용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서구에서 꽤 널리 받아들여져 있어서, 이걸로 아시아의 여러 현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한국의 방역 성공을 중국의 빠른 회복 등을 한데 묶고, 양자 모두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고,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국민성을 근거로 들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문화원론적 설명은, 뭔가 근본적이고 심오해 보이긴 하지만 개별 사안들에 대한 무지와 비논리를 가리는 도구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그 반대의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 사회학자 임동근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위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방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정치이념과는 상관없이,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민주시민”들이 방역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천관율, 2020). 그런 연구를 알지 못한다 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들만 취합해봐도 집단주의, 위계주의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방역을 잘 했다는 설명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중국의 방역은 lockdown방식이 핵심이니깐 한국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영국과 가까운 것이다. 둘째로, 한국사람들, 매너는 위계 순응적일지 몰라도 체제에 그렇게 복종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수십년간의 민주화투쟁을 봐도 그렇고, 최근 현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역정책에까지 저항하는 우파세력을 봐도 그렇다. 정말로 권위에 순응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인데, 그 둘의 방역 성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낫지만 한국보다는 좀 못하다.

한국이 방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Sonn & Lee (2020)에서 썼듯이, 몇 년전 겪었던 MERS의 경험이 핵심이다. 당시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두었다. MERS 확산 당시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서울시가 시행했던, 정보공개를 중심에 놓은 대응방식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동선공개에 대체로 협조적이게 되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방향도 이런 전문가들사이의 합의와 모순되지 않았

다. 박근혜정부는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향이 MERS방역 초기 실패도 낳았고, 세월호 침몰에 대한 음습한 대응도 낳았고, 중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실패도 낳았다. 그런 정권이 탄핵되고 성립된 정권이라면, 정권의 이념이나 대통령개인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박근혜정부의 반대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원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무관하게 아주 흔한 일이지만, 이번 방역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이 MERS이후에 합의하게 된 정책의 방향과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대체로 맞아떨어진 덕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서구 언론인들의 관심 밖이다. 네러티브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러티브와 상충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대부분의 경우 폐기되는 것은 네러티브가 아니고 증거이다. 여기서 언론인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Kuhn이나 Lakatos 같은 과학철학자들이 이미 몇 십년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의 반증으로 기존이론이 폐기되는 Popper적 과학진보의 상황은 과학중의 과학인 물리학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언론인들이 증거가 많이 축적되기 전까지 자신들의 기존 네러티브에 집착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증거를 보고 기존의 네러티브를 폐기하기 보다는, 일단은 비슷한 증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대중을 위해서나.

## 문화환원론은 편리하다

또 한가지, 그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던 네러티브가 왜 하필 문화환원론적인 네러티브였는지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근본적인” 설명을 찾아 문화적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서구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흔한 이유는, 결국 문화환원론적 설명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 아닐까?

내게 익숙한 사회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현상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그 차이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라고 해버리면 설명이 쉽다. 그 문화가 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며, 문화는 꽤나 빨리, 꽤나 쉽게 바뀐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예를 들어보자.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인은 수천 년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래서 고층아파트를 싫어하고 단독주택을 좋아한다고 흔히 이야기했었다. 그 때는 그게 상식이었다. 4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다들 믿고 있다. 수천 년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땅에 대한 집착이 40년 만에 사라졌다! 사실 수천 년 지속된 문화보다는 개인이 자라면서 본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40년이면 문화가 바뀌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이미 40대가 될 시간이니 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은 원래 교육열이 높은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다들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해방당시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모든 저발전국의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방, 전쟁, 가난을 뚫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자식을 교육시킬만큼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50년대까지 문맹률이 아주 높은 편에 속했다. 다른 저소득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이후에 생긴 문화현상일 뿐이다. 소설 [84년생 김지영]에도 나오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들은, 딸이 공장에서 벌어진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는 성차별적 교육열조차도 60년대 이후, 대학나오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생긴 다음에 발생한 현상이지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이 문화이니, 어떤 변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 것이 사회과학자의 일일 것이다. 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현상을 설명하려 하면 연구를 절반만 한 것이다. 사실 문화환원주의적 설명은 “개네 원래 그럴잖아”, “거기는 원래 그래” 이런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고 묻는데,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답하는 것은 답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인간은 그런 대답에 쉽게 현혹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이 잘 모르는 타자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자세히 세부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은 없고, 타자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 정보가 조금 있는 경우, 그 정보에 기반하여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이지 아닐까 한다.

## 지식의 사회적 relevance을 얻기 위해선

### 지식의 질을 저하시켜야 하므로

그러니 학자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언론을 통해 대중을 설

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워낙 어려운 일이니, 학계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책학에는 knowledge utilization studies라고 해서, 학술연구가 정부정책에서 활용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분야가 있다 (Weiss, 1972; Patton, 2008). 지리학에서도 지리학 연구가 어떻게 하면 국가나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Ackerman, 1962; Banks and MacKian, 2000; Imrie, 2004; Massey, 2000; Markusen, 1999; Martin, 2001; Sonn and Kang, 2016). 상대가 언론이든, 정책결정자이든, 일반대중이든, 학술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해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해 연구까지 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회과학자의 효용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정부, 대학, 연구비 지원 재단들 모두 학자들에게 연구의 사회적 효과를 증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증명이 대다수 교수들, 특히 인문사회과학계열 교수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다. 예전에는 사회 전체에 지식의 stock이 부족했으니, 모르는게 있으면 교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당장 필요한 지식은 각종 컨설턴트들과 언론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흔히 믿는다. 컨설턴트들과 언론인들의 주장에는 뻔히 보이는 오류가 많이 들어 있지만, 그런 오류는 대부분 시대적 유행에 기반한 것들이라서, 사회과학자들이 이익을 제기해봤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아냥만 듣고 끝나거나, 온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혼자 잘났냐 이런 소리 듣기 끝나기 쉽상이다. 십년쯤 지나서 연구자의 발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해도, 그 때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했다가는 “넌 아직도 그 얘기냐”라는 핀잔을 들을 뿐이다. 그 때는 이미 다른 유행이 대중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또, 일반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똑같이 힘들다. 도시계획 학자로는 매우 드물게 다른 학문분야에 꽤 큰 영향을 미쳤던 Richard Florida의 사례를 보자. 그는 사실 도시계획보다는 경제지리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를 유명하게 만든 creative city 개념도 도시계획보다는 경제지리쪽 개념이다. 경제지리에서는 그의 연구를 완전히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비판자들이 경제지리 내부에서는 Richard Florida 보다 지명도가 훨씬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학자들이나 문화학자들은 Richard Florida의 말만 듣고, 그를 비판한 다른 경제지리학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결국, 학자들도 자기 분야를 벗어난 주제에서는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엄

밀한 연구결과보다는 시대적 유행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른 분야 학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전달하기가 이렇게 힘들니,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

여기에 더해, 한국 밖에서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아시아적 가치 등 각종 문화화원론과도 부딪히게 된다. 한국 밖의 언론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한 연구결과보다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들, 즉 방역이나 남북관계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좋겠으나 언론인들은 항상 몇 개의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인들은 위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또는 북한의 정권은 일관성이 없는 레짐이라는 전제 등이다. 그 전제를 흔드는 답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네러티브가 손상되는데, 이미 수고해서 한 인터뷰를 통째로 버리고 싶지는 않으니 인터뷰 내용을 잘라서 여기 저기 집어넣는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진의는 왜곡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중적 소통과 학자적 전문성, 둘 다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 때,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전문성을 조금만 희생하면 대중성을 꽤 많이 강화할 수 있겠으나, 점점 희생해야 할 전문성은 많아지고 얻게 되는 대중성은 적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 정답은 없는 것 같으니 각자 성격에 맞게 살 수밖에. 내 성격에는 내 연구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재미있는 연구만을 하고 싶었던 몇 달 전까지의 태도가 잘 맞는 것 같다. 내가 인정욕구가 전혀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중의 인정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몇몇 학자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던 그 태도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다.

#### 참고문헌

- Ackerman, Edward A. 1962 Public policy issues for the professional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2(3) 292-298.
- Banks M & MacKian S (2000) Jump in! The water's warm: a comment on Peck's 'grey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25 (2) pp. 249-254.
- Imrie R (2004) Urban geography, relevance, and resistance to the 'policy turn' *Urban Geography* 25 697 - 708.
- Langer, E., Blank, A., & Chanowitz, B. (1978). The mindlessness of Ostensibly Thoughtful Action: The Role of "Placebic" Information in Interperson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6), 635-642.

- Markusen A. (1999) Fuzzy concepts, scanty evidence, policy distance: the case for rigour and policy relevance in critical regional studies *Regional Studies* 33 869 - 84.
- Massey, D. (2000) Practicing political relevan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5 131 - 3.
- Patton, M. Q. (2008)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Sonn, J. W. & Kang, H. (2016). Bureaucratic Rationale and Use of an Academic Concept in Policy-Making: The Rise and Fall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South Korea. *Regional Studies*, 50(3), 540 - 552. <https://doi.org/10.1080/00343404.2015.1052061>

2015.1052061

- Sonn, J. W., & Lee, J. K. (2020). The smart city as time-space cartographer in COVID-19 control: the South Korean strategy and democratic control of surveillance technolog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00(00), 1 - 11. <https://doi.org/10.1080/15387216.2020.1768423>
- Weiss, C.H. (1972) *Evaluation research: Methods of assessing program effectivenes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천관울 (2020)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 의외의 응답 편, [시사IN] 6월 22일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2>

## 신임교수 칼럼

### 배우는 것의 즐거움

- 강전영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 1일자로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조교수로 임용된 강전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한지리학회보를 통해 제가 많은 선후배 연구자들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하여,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2018년 9월 뉴욕주립대-버팔로 (SUNY at Buffalo)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일리노이 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CyberGIS Center for Advanced Digital and Spatial Studies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낸 후,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임용되었습니다. 저의 고향, 공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공간데이터과학 (Geospatial Data Science)과 지리정보과학 (GIScience)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 기반 모델 (Agent-Based Model)과 슈퍼컴퓨터 및 고성능 처리 컴퓨팅 기법을 활용한 시공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은 행위자 기반 모델의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위한 정량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모기 매개체 질병 중 하나인, 뎅기열의 확산 시뮬레이션을 사례로 하여, 뎅기열 발생의 다중 스케일에서의 시공간패턴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밖에 시공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재해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의 대피 방안 모색과 같은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미국 일리노이 주의 병상 및 산소호흡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

리노이 주의 보건당국과 함께 공간적 접근성 측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독감의 확산 시뮬레이션 및 재재로 인한 대피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리학, 공간데이터과학, 지리정보과학, 공공보건학 및 도시환경학의 융합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4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한 이후, GIS 및 인문·자연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지금의 저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 2학년 때부터 경희대학교 GIS 연구실에서 GIS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GIS의 공간 분석 및 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생겨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에는 지도교수님 (Dr. Jared Aldstadt)과 함께 감염질환 확산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건지리학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질병관련 학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지리학적인 관점이 감염질환의 확산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위취득 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GIS 분석 기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슈퍼컴퓨터 및 고성능 처리 컴퓨팅 기법과 같은



GIS의 최신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생활 및 연구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는 즐거움이 늘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지리학의 연구 및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발한 교육 및 학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리에서 선후배 연구자 분들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학회 회장 칼럼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장 인사말

- 이경한(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장,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한지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대(2020년 1월-2021년 12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회장을 맡은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한 교수입니다. 1993년에 창립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학교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지리교육과 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해 지리·환경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① 지리·환경교육에 관련한 이론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개발, ② 년 2회의 정기적인 학술발표대회 개최, ③ 지리교육과 환경교육에 관한 세미나, 연구협의회, 강습회의 개최, ④ 학회지 및 지리·환경교육 자료집 등의 발간과 보급, ⑤ 지리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한 학교현장 활동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학회는 지리교육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담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노고와 성원에 힘입어 2005년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4대 학회 임원진은 먼저, 학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인 지리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둘째, 현재의 회원들과 미래 회원들이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지리교육과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학회 회원들의 관심 사항, 지리교육 및 환경교육의 현안문제, 학교현장에서의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Issues & Approaches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회의 국제학술교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지리교육학회와의 교류를 실시하고, 유럽과 미국 등지의 지리교육과 환경교육의 연구동향을 회원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시에 지리교과의 이익과 권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지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교사의 임용 정원 등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회원들의 합리적 이익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가온 학교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비대면 온라인 지리수업 실행, 지리교육의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리교육 방향 등에 논의와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 지리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의 제14대 임원진들은 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소통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지리학회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학회 회원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환경재해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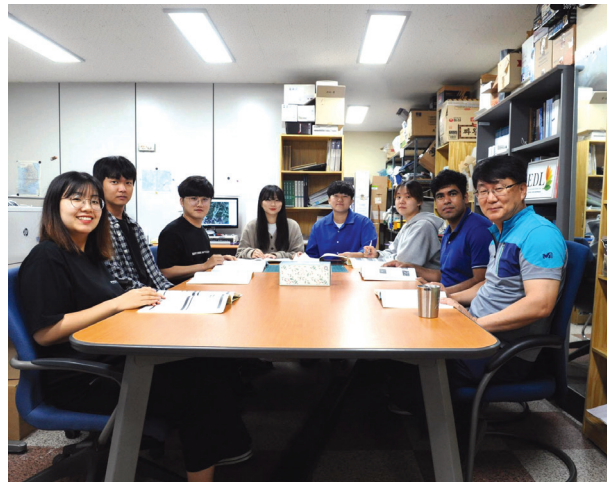
- 장동호(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근 우리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이전에 경험치 못한 대형재해의 위험부담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를 통한 재해예방과 대비노력이 꼭 필요하다. 지리학 내에서도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이 진행되면서 재해 위험평가 및 환경보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주대학교 환경재해연구실(Environmental Disaster Lab)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평가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대학원 석·박사 인력 양성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위험성 평가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과 2019년에는 각각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사업” 및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연재해 연구 이외에도 토지피복 변화 예측 및 전자문화지도 사업 등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지리학의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리학과 학생 및 타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교육, 재해 위험성 평가, 재해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리학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재해연구실은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소속으로 장동호 교수의 지도 아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GIS 및 Remote Sensing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분석, 재해 위험성평가·예측 연구 및 지리학 관련 융복합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연구들의 대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중심의 연구이며, 이밖에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의 대표적인 연구는 첫째, 한국의 향토민요 DB구축과 전자문화지도 제작(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과제로 향토민요 복원·번역 및 디지털화, 향토민요의 전자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한국연구재단: SSK지원사업) 과제에서는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식량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량 예측 등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육상생태계 변화조사(국립생물자원관) 과제에서는 드론과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고정밀 정사영상 제작과 서식지 유형 분류 등 하천환경 변화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 개방에 따른 육상생태계 및 서식지 종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미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사업)를 통해 해수면 상승 속도에 따른 조건대 면적 변화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RS와 GIS를 활용해 습지 및 산지 지형자원의 분포가능지 예측(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지원사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 본 연구실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자연환경조사 및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무인도서 등의 조사사업에 참여하여 국토의 지형·지질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등 현장답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4차산업 관련 기술을 전공으로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데이터 프로그래밍과 GIS를 이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있는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자연·인문학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드론(UAV)을 활용하여 정사영상 취득 및 공간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여 컴퓨터의 자기 학습을 통해 토지피복도

정확도 분석 및 추정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실의 인원 현황은 박사 2명,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3명, 연구실 청년인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실의 석·박사 배출 현황은 2020년 08월 기준으로 박사 졸업이 5명, 박사 수료는 3명이다. 석사 졸업은 15명, 석사 수료는 1명이다. 본 연구실에서 배출한 석·박사들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GIS/RS 관련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

다. 본 연구실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담을 통해 지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 4학년생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등을 터득하고, 대학원 진학 이후부터는 지리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통해 전문적인 지리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환경재해연구실은 대학원 환경재해 교육과정과 함께 지리학의 저변 확대 및 낙후된 우리나라의 재해관리 분야를 선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 소식

### 2020년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 1. 행사개요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방법** | 온라인 학술대회(ppt 동영상 사전녹화 / zoom 실시간 발표)

**사전등록비** | 10,000원(일반, 학생)

※ 일반참가자, 발표희망자 모두 사전 등록 필수. 학회 홈페이지(<http://www.kgeography.or.kr/>)에서 온라인등록을 완료해야 온라인 학술발표회 전용 웹사이트(후후 공지)에서 녹화된 동영상 시청과 Zoom을 통한 온라인 학술발표회 열람이 가능함

#### 2. 사전등록

**사전등록 및 발표신청 기간** | 10월 20일까지(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에서 신청)

**등록비 안내** | 일반, 학생, 발표자 10,000원 (홈페이지 전자결제를 통해 납부)

※ 발표집 pdf파일을 등록하신 분들께 메일로 발송할 예정

※ 인쇄본 발표집을(발송비 포함 10,000원) 원하는 분들은 등록할 때 '메모'에 발송 주소를 작성해서 신청

#### 3. 방법 및 주요일정

**일반참가자** | 학술발표회 전용 웹사이트에서 세션별 실시간 발표신청 및 질의응답

**발표자** | 학술발표회 전용 웹사이트에서 PPT 동영상 사전 녹화 발표 or Zoom을 이용한 당일 실시간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

##### (1) 구두발표

- ppt 슬라이드 쇼 녹화파일 제출 or Zoom을 이용한 당일 실시간 발표

- 발표 초록 제출기간 : 10월 30일까지(초록은 녹화 / 실시간 발표자 모두 제출)
  - 동영상 녹화 제출 : 녹화 발표자는 11월 5일까지 master@apub.kr로 제출((대용량 파일 첨부가 안될 시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
    - 발표자료 시간 : 15분 내외 (파일명 : 발표번호\_발표자)
    - 동영상 발표자료 제작 방법 : PPT 슬라이드 녹화 후, mp4 동영상 파일 제작
    - 발표영상 제작 시 음성 크기가 너무 작지 않도록 주의! 발표자 얼굴 노출은 선택
- ※ 파일명 발표번호는 10월 20일 접수 끝난 후 일괄 안내할 예정

##### (2) 포스터 발표

- 포스터 초록 제출기간 : 10월 30일까지(초록은 모두 제출)
  - 포스터 JPG포맷(필수) 제출 : 11월 5일까지 master@apub.kr로 제출(용량 크기 제한 없음, 대용량 파일 첨부가 안될 시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
  - 음성파일(선택) 제출 : 11월 5일까지 master@apub.kr로 제출(대용량 파일 첨부가 안될 시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
    - 포스터를 음성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추가로 선택하여 제작 제출
    - 발표자료 시간 : 15분 내외(파일명 : 발표번호\_발표제목)
    - 음성 발표자료 제작 방법 : 휴대폰 음성녹음 기능 사용으로 mp3 등의 음성 파일 제작
- ※ 파일명 발표번호는 10월 20일 접수 끝난 후 일괄 안내할 예정
- ※ 초록은 A4 size 2매 이내
- ※ 초록집은 가능한 별도 편집하지 않고 인쇄될 예정이오니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기 바람



#### 4. 세션 운영

- 일반 세션(개인 발표신청)
- 특별세션(연구단 및 기관 발표신청)
- 포스터 세션(개인 발표신청)

※ 특별세션 신청팀은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발표신청을 1차로 진행한 후, 학회 사무국 메일(geography77@hanmail.net)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양식은 홈페이지에 있음

#### 5. 학술대회 관련 문의

대한지리학회 사무실 | 김지영 사무장

• 전화 : 02-875-1463 • e-mail : geography77@hanmail.net

대한지리학회 학술이사 | 이승철 교수

• 전화 : 02-2260-3402 • e-mail : leesc@dongguk.edu

대한지리학회 학술이사 | 전병운 교수

• 전화 : 053-950-5231 • e-mail : bwjun@knu.ac.kr

대한지리학회 학술이사 | 김화환 교수

• 전화 : 062-530-2688 • e-mail : h2kim@jnu.ac.kr

※ 3차 안내문은 11월 초순 이후에 발송될 예정

#### 대한지리학회 2020 IGU 온라인 총회 참석

코로나 19로 인해 제34회 ICG(세계지리학대회)가 2021년 8월로 연기된 가운데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IGU 총회를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현행 및 차기 집행부와 각국 대표, 각 분과 대표 등 총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IGU 집행부(회장 Yukio Himiyama)의 활동 보고 및 차기 집행부 소개 등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간 | 2020.8.21. 16:30~ 20:40 (한국시간)

방식 | zoom 온라인 회의(YouTube 생방송)

한국 참석자 | 정현주 (국제부 이사)

주요 내용 |

##### (1) 차기 회장단 선거 결과 공표

회장(Micheal Meadows-South Africa), 부회장(Nathalie Le-marchand-France, Holly Barcus-USA, Barbaros Gonencgil-Turkey, Celine Rozenblat-Switzerland)

#### (2) 행사 공고

- 34차 IGC : Istanbul, Turkey (2021. 8.16-8.20) <https://www.igc2020.org/>
- 2021국제지리올림피아드 : 2021.8.10.~8.16(Istanbul) <https://www.igeo2021.org/about-igeo-2020/>
- 35차 IGC : Dublin, Ireland (2024. 8.25-8.30)
- 36차 IGC : Melbourne, Australia (2028. 7.9-7.14)

※ 기타 자세한 소식은 IGU-e Newsletter <https://igu-online.org/igu-e-newsletters/> 참고하기 바람

#### 회원동정

##### 신규임용

강전영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연구분야 | GIS, 보건지리학, 환경지리학

경력 | 2020. 9~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

2020. 9~ 현재, 미국 지리학회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슈퍼컴퓨터 및 고성능처리 컴퓨팅 분과 (Cyberinfrastructure Specialty Group) 이사

2018. 10~2020.8, 일리노이대-버바나삼페인, CyberGIS Center for Advanced Digital and Spatial Studies 박사 후 연구원

학력 | 2018.9 뉴욕주립대-버팔로 지리학과 철학박사 (GIS)

2012.2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이학석사

2010.2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이학사



#### 기부금 / 이사회비 및 찬조금

대한지리학회는 여러 이사분들의 도움으로 학회 활동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이사님들의 이사회비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과 같이 이사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좌이체 : (사)대한지리학회 국민은행 841-25-0006-810
2. 카드 전화결제 : 신한, 국민, 삼성, BC(카드번호/유효기간)

☎ 02)875-1463

※ 계좌 이체시 성함을 입력해주세요.

※ 이사회비는 개인 연회비와 별개입니다.

## 한국공간환경학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환경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일시 |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유튜브 라이브 채널 |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SNU

11:00 ~ 12:00 [특별세션 I] 선거구획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13:00 ~ 14:50 [일반세션] 삶과 공간: 장소되기, 경계긋기 그리고  
연결망짓기

15:00 ~ 17:00 [특별세션 II] 코로나19 이후 공간환경 변화

17:00 ~ 17:30 [총회 및 폐회]

## 회비안내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안내

정회원 : 5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40,000원)

(석사재학중인 2년간은 학생회원으로 연회비 20,000원임.  
단, 재학증명서 첨부)

단체회원 : 9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80,000원)

### 학회비 납부 방법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상의 전자결제 이용(본인의 ID로 로그인  
한 후 [회비납부]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되며, 바로 회원정보  
에 반영됨)

## 새로 나온 지리책

### 북한지리백서

박수진, 안유순 지음, 2020, 푸른길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공간정보의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 지식에 결여되었던 시각, 즉 지리적 맥락을 보완하여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명을 비롯해 북한의 지형·지질, 기후, 식생, 자연생태계와 경제·산업, 교통인프라 등 총 13장의 원고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지, 남북 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남과 북이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사회적으로 번영하는 한반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있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리학적 사고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이 최초의 북한지리 전문서로서 남북 협력과 번영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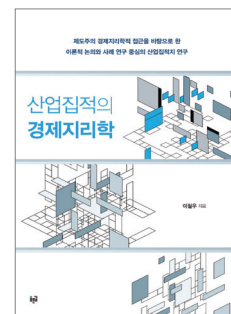


### 산업집적의 경제지리학

이철우 지음, 2020, 푸른길

이 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산업집적지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가 30여년 동안 학술지에 게재했던 70여 편의 논문 가운데 18편을 추려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의 이론적 접근방법은 산업집적지 연구의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보편적 법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고전적 접근방법 대신 제도주의 경제지리학적 접근방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과정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상호통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 공생적인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주의의 접근은 정부, 노동조합, NGO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의 공식적·비공식적·정치적 관례와 사회적 관습을 포괄하는 비경제적 제도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이 책은 첫째, 제도주의 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과제를 찾아내고, 둘째, 이에 대한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해 개념을 포함한 기존 이론을 발전시키며, 셋째, 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틀의 개선과 관련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책의 구성은 크게 제1부 이론적 논의(8개 장)와 제2부 경험적 사례 연구(10개



장)로 이루어져 있다. 이론적 논의는 특정 이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보다는 산업집적지라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중심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권위 있는 기존 이론과 사례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나름대로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분석 틀과 방법을 정립하여, 이를 사례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경제지리학, 특히 제도주의 경제지리학적 연구가 향후 산업집적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새로운 북한, 오래된 북한

에카르트 데게 지음, 김상빈 옮김, 2020, 푸른길

1970년대부터 한국을 연구해 온 독일 지리학자이자 한국 전문가

인 그가 이번에는 DMZ 너머, 북한을 담은 사진집으로 2년 만에 돌아왔다. 『독일 지리학자가 담은 한국의 도시화와 풍경』이라는 제목의 컬러 사진집을 통해, 1970년대 한국 경관의 변화와 삶을 소개한 바 있는 에카르트 데게의 두 번째 사진집이 출간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저자의 답사는 북한에서부터 중국 단둥과 러시아 하산까지 이어지는 16개의 경로로 완성되었다. 총 190개 항목에 실린 323장의 사진과 설명 속에는 지리학자로서의 시각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